

제주 주거, 건축문화의 이해

양 상호(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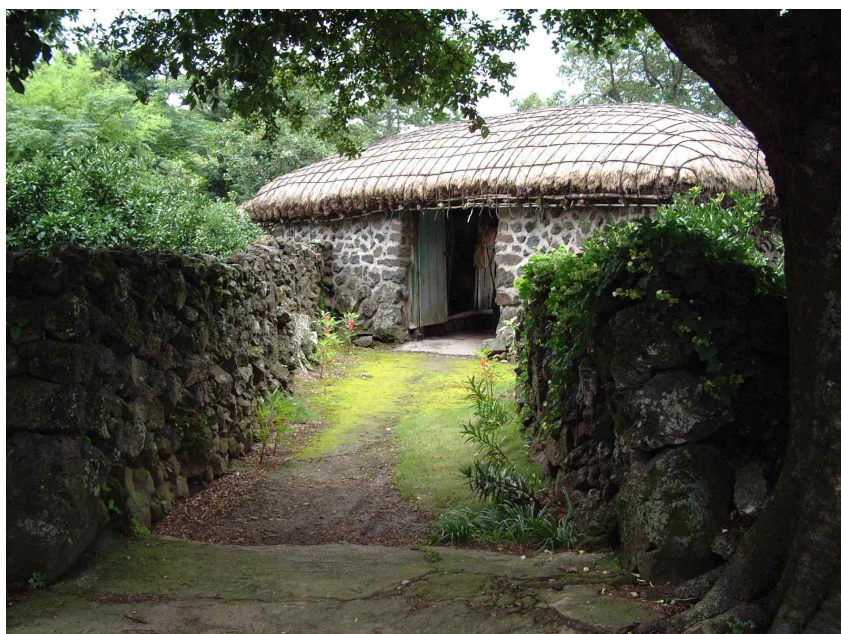
1. 시작하면서

가) 강연의 개요

건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라는 원초적인 역할을 위한 장치로서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내었다. 건축의 이러한 원초적인 목적은 인류문명의 변화(발전 혹은 진보)와 함께, 기술과 예술의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 채 필요성·사회성·기술·문화·기후 등의 영향요소들에 의하여 다양하고 수많은 유형으로 분화되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이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지역마다의 고유한 재료, 구조기술, 형태 등을 결정짓게 한 것이다.

특히 주거건축의 경우, 인간의 가장 원초적 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무수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면서 그 내용을 결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거는 거주자의 삶의 행태와 정신세계가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물리적 실용적 형태를 넘어 문화적 가치로 간주되어 주거학이나 건축학의 중심적 연구대상이고 사회학이나 민속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등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본 강연에서는 제주전통주거의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제주건축문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부분적이거나 피력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제주건축의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제주의 각 지역별 특징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또, 지나치게 건축의 전문적인 내용은 배제하고자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본 강연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제주건축문화 및 제주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여, 이러한 내용들이 나름의 배경과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확고히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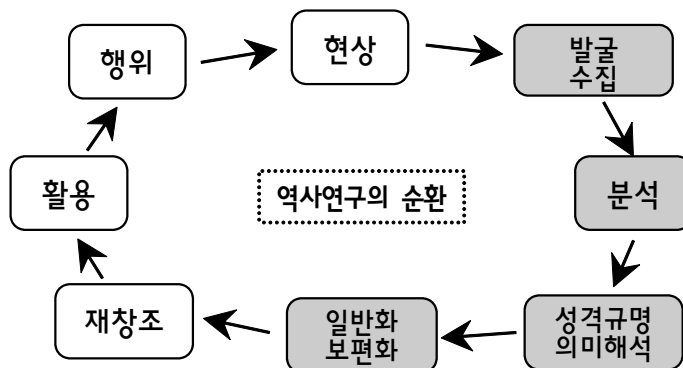
제주주거의 전형적인 문간올래(한림읍 명월리 양씨 대)

나) 역사학자(건축사학자)의 역할

- 현상(現狀) :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 현재 파악 가능한 내용
- 발굴/수집 : 현상(現狀) 중에서 가능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정리함.
- 분석 : 수집 및 정리된 자료를 특정한 방법으로 분류하거나 유형화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함.
- 규명/해석 : 분석된 내용에 대한 성격이나 의미를 규명하거나 해석함.
- 일반화/보편화 : 규명이나 해석의 축적을 통하여 보편타당성을 확보함.
- 재창조 : 보편타당성이 확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효용에 적합한 내용으로 만들어 냄.
- 활용 : 재창조된 내용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함.
- 행위 : 활용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現象)

→ 역사학자 : 현상(現狀)의 발굴, 수집에서 분석, 해석을 거쳐 일반화, 보편화까지

→ 건축사학자 : 특히, 건축내적 내용에 관한 분석과정이 치밀해야 하는 과제



다) '주거(住居)'의 개념

‘살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목숨을 유지한다(生)’, ‘살림을 영위한다(住)’, ‘자리 잡고 머무른다(居)’, ‘생기가 있다(活)’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생기 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자리 잡고 머무르며 살림을 영위한다’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자말로 바꾸면, ‘거주생활(居住生活)’ 또는 ‘주거생활(住居生活)’이 된다. 또, ‘거주’는 ‘자리 잡고 머물러 살림을 영위하는 일’을 뜻하고, ‘주거’는 ‘자리 잡고 머물러 살림을 영위하는 곳’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한자말은 ‘살다’의 명사형인 ‘삶’ 및 ‘삶의 터’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주거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주처(定住處)’라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주거는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소집단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족중심의 안정된 생활의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되어 마련된 것이다. 주거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활동의 장이 된다. 즉, 주거는 개인 및 가족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생활기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거생활이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가족을 이루는데, 이 가족을 단위로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생활장소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이 주거인 것이다.

주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다양한데, ‘집’ ‘가옥’ ‘주택’ ‘주거’ 등이 그것이며, 서구에서도 ‘house’, ‘dwelling house’, ‘dwelling’, ‘residence’, ‘mansion’ 등이 있다. 집은 흔히 인간이 사용하는 건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가옥은 부동산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주택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택(宅)’에는 부지를 의미도 갖고 있어서 일정한 부지를 갖는 주거용 건물로 정의되며 부동산과 관련된 의미가 강하며, ‘주거’는 인간의 생활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서 문화론적인 서술에 가장 적합한 용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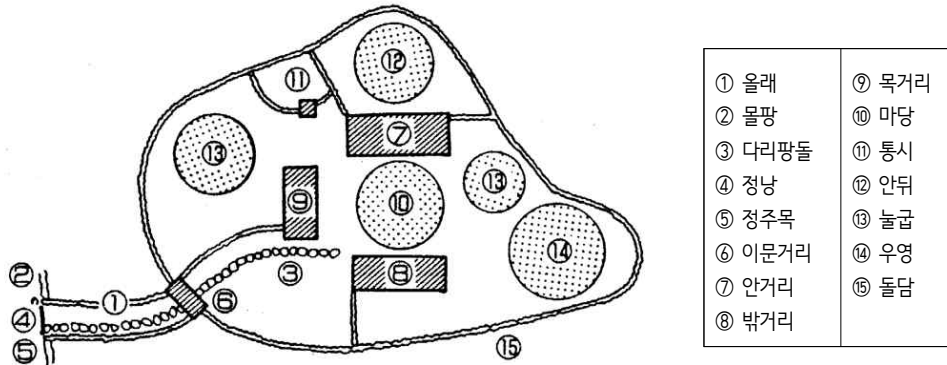
2. 제주주거의 건축내적 특성 소개

가) 제주전통주거와 관련된 용어(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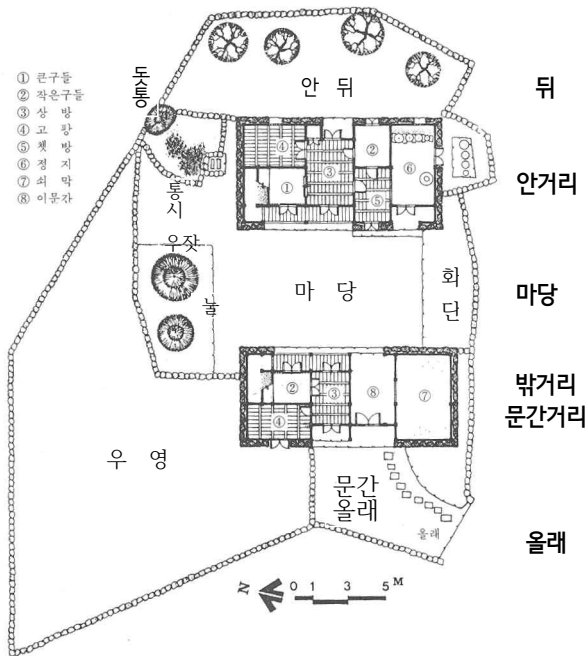
- 외커리집 / 두커리집 / 세커리집 / 네커리집 : 울타리 내의 건물 棟數에 따라 부르는 명칭
- 두칸막살이집 : 전면에서 보아 2칸으로 이루어진 집, 대부분 정지와 구들의 2칸 구성
- 세칸집 : 전면에서 볼 때 3칸으로 이루어진 집. 중앙에 상방, 좌우에 정지와 구들의 3칸 구성
- 네칸집 : 전면에서 볼 때 4칸으로 이루어진 집. 세칸집에서 구들칸 1칸이 더해진 4칸 구성
- 올래 : 한질 또는 거릿길에서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여러 세대가 공유함.
- 문간(이문간, 먼문간) : 주택의 울타리 경계에 위치한 대문 또는 그 공간
- 문간거리(이문거리) : 이문간이 설치된 건물(棟)
- 안거리 / 밖거리 / 모거리 : 主棟 / 주동과 상대되는 棟 / 안·밖거리와는 구별되는 부속동
- 정지거리 : 정지를 별도로 설치한 건물(棟), 이 경우 안·밖거리에는 정지가 없는 게 일반적임.
- 낭간 : 건물전면의 툇마루에 해당하는 마루공간
- 상방(上房) : 주택중앙의 마루방, 마리·삼방 등의 별칭이 있음.
- 큰구들 / 작은구들 : 큰방 / 작은방, 면적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치에 따른 구분임.
- 찻방 : 찬방(饌房), 간이식사 또는 배선(配膳)을 위한 공간으로 정지와 연결되어 위치함.
- 고팡 : 고팡(庫房), 곡식을 보관하는 폐쇄적인 공간, 대부분 마루방이며 큰구들 뒤편에 위치함.
- 정지 : 부엌, 난방기능과 취사기능이 구분되어 있음.
- 장방 : 수납공간. 주로, 상방뒤편 옆 벽체에 설치하는 벽장으로 제기 등을 보관
- 생기기둥, 상기둥 : 상방에서 큰구들과 고팡 사이에 위치한 기둥. 상징적 의미가 강함.
- 상방대문 : 마당에서 낭간을 거쳐 상방으로 출입하는 문. 신앙적으로 상징성인 강한 문
- 제창문, 호령창, 생깃문 : 상방대문 옆에 설치한 창문
- 봉덕화로(봉답화로) : 상방의 바닥에 설치한 불박이 돌화로.
- 솔덕 : 정지에서 취사용 솔들을 걸기 위해 판돌로 만든 시설
- 불치통 : 솔덕에서 나온 재를 모아두기 위한 공간. 솔덕의 뒷부분.
- 부섭 : 취사, 조명, 채난 등을 위해 정지바닥에 설치한 화로시설
- 굴묵 : 구들에 난방을 하기 위해 불을 때는 공간.
- 마당 : 안거리, 밖거리 또는 모거리 등 각 건물과 부속시설들에 의해 정갈하게 둘러싸인 개방적인 공간
- 안뒤 : 안거리 혹은 밖거리의 뒤편 공간
- 돌막 / 쇠막 : 마구간 / 외양간
- 통시 / 돛통 : 변소, 뒷간 / 돼지우리
- 우영(밭) : 울타리안팎의 채소밭(텃밭)
- 놀왓(놀굽) : 보리대, 꼴, 낱가리 등을 쌓아두는 장소의 받침대
- 장항굽 : 장항아리를 올려서 보관하는 장소의 받침대, 장독대
- 정낭 / 정주목 : 주거의 출입부에 설치한 가로목재 / 정낭을 걸어두는 지주
- 풍채(風遮) : 건물의 낭간(툇마루) 전면 처마 밑에 설치하여, 강한 바람 또는 햇볕을 막기 위한 시설
- 말팡 / 물팡 / 다리팡돌 : 말을 오르내리기 위한 디딤돌 / 물허벅을 내려놓기 위한 시설 / 디딤돌
- 축담 : 건물의 외벽체 밖에 덧쌓은 돌담. 방풍, 발수의 기능

나) 제주주거의 외부공간(배치방식)

- 올담과 위요감(圍繞感) / 외커리집, 두커리집, 세커리집, 네커리집 ※ 정지거리 / 안거리•밖거리
- 올래 구성 : 문간 올래 / 마당 중심의 주공간(안팎거리) 배치 / 뒤 공간(안뒤) / 경관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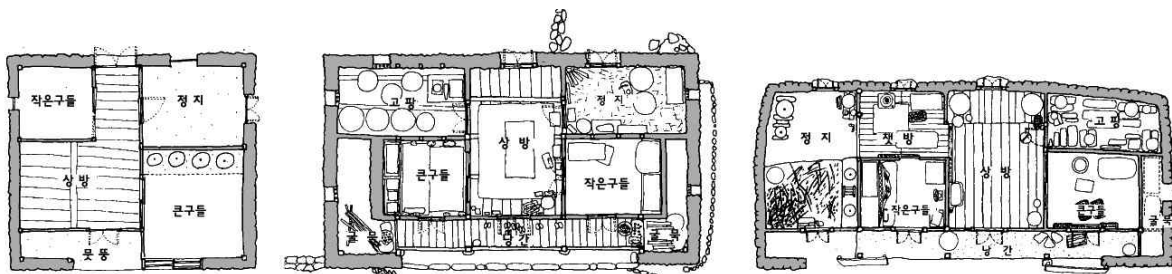
제주전통민가의 외부공간구성도



제주주거 올담 안의 부속공간 및 시설(애월읍 하가리 오씨댁)

다) 제주주거의 내부공간(평면)

- 세칸집 기본 / 상방 : 상징성 / 큰구들 • 은구들 : 크기, 위치 / 정지 : 난방, 취사의 분리



제주전통주거의 평면 유형(좌 : 두칸막살이집 / 중 : 세칸집 / 우 : 네칸집)

3. 제주건축문화 :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가) 자연환경

1) 지질

- 투수성 강한 화산회토(火山灰土)지질 : 척박토질, 田作이 대부분(畚農은 극소수, 1.9%), 乾川이 대부분 : 알칼리현무암, 조면현무암, 조면안산암 등
- 육지의 투수된 물은 주로 해안지역에서 용출되어 식수 등으로 이용(해안 용천수) ※ 중산간 봉천수

2) 기후

- 연평균 기온 : 제주 15.5 - 서귀포 16.2 - 고산 15.5 - 성산 15.2°C → 1월 5.0~6.6°C / 8월 26.1~26.6°C
- 연평균 풍속 : 4.7m/s → 제주·서귀포·성산 3.1~3.8m/s, 고산 6.9m/s → 전국 최강급(도서 vs. 내륙)
- 폭풍일수(풍속 13.9m/s 이상) : 고산 80일 이상, 제주 14.5일, 서귀포 2.8일, 성산 0.9일
- 연평균 풍향 북서풍 및 북풍이 많음(봄 북동풍, 여름 남동풍, 가을 북서풍, 겨울 북풍 or 북서풍)
- 강수량 : 제주 1,457 - 서귀포 1,851 - 고산 1,095 - 성산 1,841mm(전국 1,246mm)
- 강우일수 : 제주 130.6 - 서귀포 122.8 - 고산 113.6 - 성산 120.6일
- 전체 강수량의 60%가 6월~9월 집중 → 남동해안지역 최다, 북서해안지역 최저
- 일조시간 : 제주 1,900 - 서귀포 2,062 - 고산 2,054 - 성산 2,148시간

※ 척박한 토질(평균경토깊이 18cm, 뜸땅), 귀한 물, 강한 바람, 집중 강우 등 열악한 자연조건

→ 제주의 독특한 문화내용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을 작용



제주의 설풍경 @서재철



제주여성들의 물허벅 행렬 @홍정표



제주여성의 밭일(곰배질, 섬비질) @고광민?

나) 건축공간의 위계 : 신앙

- 건축공간의 위계질서 부여 → 주거 내 각 공간에 신격 부여
- 가신(家神, 각도) : 문전본풀이·성주풀이·칠성본풀이·토신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각도비념
 - 성주신(집안 전체) - 제주에서는 형식적인 존재
 - 문전/일문전(상방대문) - 가장 강한 영향력 / 안정과 안녕
 - 조왕(정지) - 여성(주부)의 가사에 영향력 : 화재, 구설(口舌) / 통시와의 관계
 - 안칠성(고팡) - 식량 관장 / 귀중품(곡식, 씨앗 등) 보관 / 큰구들과의 관계
 - 밧칠성(안뒤) - 부귀 관장 / '뒤'공간의 신성화 : 프라이버시 유지
 - 주목지신(정주목) - 집 경계(境界)를 구획
 - 정살지신(정낭) - 집안 출입
 - 놀굽지신(놀굽) - 놀(수확 곡식)의 수호신
 - 올담·내담지신(올담) - 올타리, 부정
 - 오방토신(마당, 집터의 5방위) - 올타리 안 수호
 - 칙로부인(통시) - 경계(警戒)의 대상 : 청결, 위생
 - 삼신할망(큰구들의 産神) - 출생 및 육사 무사, 큰구들
 - 구삼신할망 - 육아의 정성
- 생깃기둥(상기둥, 백이기둥) : 큰구들과 고팡 사이의 기둥.
성주신 위치. 상좌(上座). 위계의 기준
- 상방대문 : 일문전이 위치. 문전제
- 안뒤 : 신이 깃든 외부공간의 신성화 : 폐쇄감, 형식성
- 큰구들 / 은구들 : 면적과 상관없이 위계에 의한 명칭
- 비유교적 생활태도 : 현세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조상신에 대한 정성을 통하여 초자연적 혜택을 기원 / 형식만 유교적 형식 차용
- 이형상 목사의 건포배은(巾浦拜恩) : 제주문화인 “당오백 절오백”을 폐습으로 혁파하고자 했던 성리학자의 반문화적(反文化的) 파괴행위



탐라순력도 중의 '건포배은'

다) 별동형 배치(안거리/밖거리) : 가족제도, 여성의 역할

1) 가족제도

- 핵가족제도와 대가족제도의 중간형태(한 올타리 내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
- 열악한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한 생존전략의 결과
 - : 빈약자원, 열악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조직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 결과
 - 개별적 노동투입의 전작농업 중심사회(cf. 수리시설의 공동사용, 집약적 노동투입의 답작농업)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밭농사와 나잠어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적응 결과
 - 가부장적 대가족제보다 평등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유리
- 생존을 위해 실질과 능률 추구, 합리적 적응 : 실용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cf. 겹부조)

2) 여성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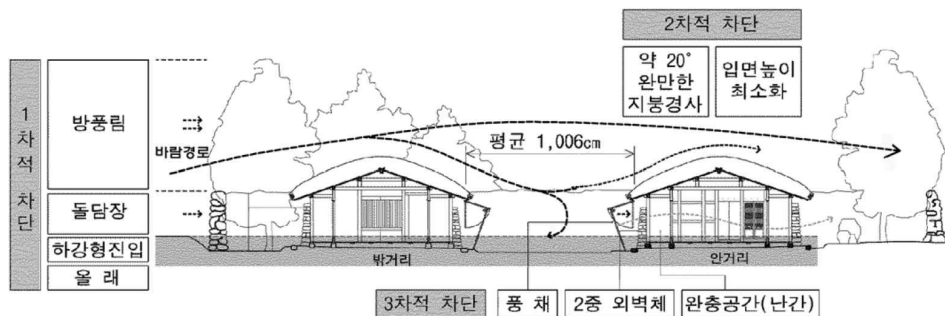
- 역할이 많은 만큼 지위도 높음 : 시댁 내, 출가 딸의 친정 기여, 촌락내혼, 사후혼, 외척 및 처족
- 신성공간인 '안뒤'는 전형적인 여성공간 : 밧칠성, 조왕, 문전신 등에 대한 정성을 담당

3) 안팎거리(안거리·밖거리)

- 비유교적(= 비부계적) 문화 바탕 위에서, 세대(世代)간 구분 vs. 남녀간 구분(cf. 안채·사랑채)
- 경제 공간인 '정지'의 별도 사용
- 안채, 사랑채와 구분, 비유교적 가치관 : 조상신 숭배, 겁부조,

라) 독특한 경관 구성 : 기후

- 경관의 특성 : 폐쇄적, 낮은 높이, 느린 지붕경사, 짧은 처마, 집줄, 울담 높이,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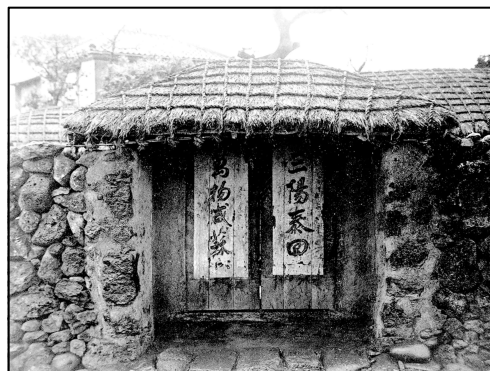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주거건축의 구성

마) 수수께끼 : 특히, 공간에 관한 내용

- 올래 : 사유공간(私有空間)의 공유화(公有化)
- 대문 : 시설은 있으나, 명칭의 문제 ※ 정낭 : 농촌형 대문장치
- 공간의 명칭 : 방, 간, 구들 등 (상방, 큰구들, 은구들, 고팡, 낭간, 장방, 정지)
vs. 타 지역의 공간 명칭이나 성격과 차이 : 대청, 안방, 사랑방, 건넌방, 헛간, 뒷마루, 벽장
- 독특한 공간의식의 발로 → 제주인의 공간의식에 대한 연구 필요



제주의 올래 : 두벌올래



제주민가의 대문시설

4. 강연을 마치며

가) 제주문화

-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합리적 적응이 필수인 사회
: 자연의 거대한 위력에 인간 한계를 절감 → 초자연적 힘에 의존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 관념적 상징보다 삶에 대한 사실적 표현
: 실질적, 현세적 사고 → 고단한 삶의 해소를 위해 복락, 건강, 부귀, 장수 등의 기원

나) 제주 건축문화

- 제주의 자연조건에 적응한 형태, 구조, 재료
- 제주인의 신앙과 생활을 합리적으로 수용한 공간, 기능

다) 맺는 글

인간이 절대적인 고립상태에서 생존할 수 없듯이, 문화도 상호 교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각종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문화란 타문화와의 비교에 의하여 자문화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는 비교문화론이 서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문화는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건축문화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은 **풍토성**과 **변방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의 가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방법을 모색하면서 풍토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며, 한반도 정치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또는 분리의 정서가 변방의 문화로 덧씌워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은, 제주문화의 내용이 지배층의 문화를 나타내는 내용(중앙의 귀족문화)보다 서민의 실질적인 삶과 관계된 내용(풍토성 강한 변방의 서민문화)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제주도는 인구나 경제력 등의 자원적 능력에 비해,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훨씬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포함하여 정책적인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장 밑바탕에는 일반대중의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마치 사상누각과도 같은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교류의 속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자칫 서로 뒤섞이고 변질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문화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자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되찾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의질을 높임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막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 볼 때이다.